

「개알 책꾸러미」 4

보이는 책

가족독서활동 가이드북

우리마을
책친구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행복한
도서관
재단
HAPPY LIBRARY FOUNDATION



『우리마을 책친구』는?

『우리마을 책친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행복한도서관재단이 주관하는 ‘2012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개발한 독서 브랜드입니다. 『우리마을 책친구』는 우리 집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책과 이웃을 만나 소통하고 친구가 되는 책마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과 ‘우리마을 책친구’ 웹사이트(www.webookfriends.org)를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깨닫고 알아가는 책 읽기 되돌아보기

책 읽기는 ‘깨닫고 알아가는 생각의 과정’입니다. 먼저 각자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책 읽기 활동을 점검해 보세요. 아래 질문을 잘 읽고 각자 해당하는 칸에 『우리 마을 책친구』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우리 마을 책친구』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가족 1	가족 2	가족 3	가족 4	가족 5
1	책 제목을 보고 책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았나요?					
2	지은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나요?					
3	어느 출판사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나요?					
4	책을 읽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에 대해,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읽었나요?					
5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가며 읽었나요?					
6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된 내 생각과 느낌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두었나요?					
7	책을 다 읽은 뒤, 지은이가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나요?					
8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들도록 말할 수 있나요?					
9	『깨알 책꾸러미』에서 안내하고 있는 책 읽기 활동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나요?					
10	책 읽기 활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더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나요?					

스티커를 다 붙인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집 최고의 책친구’를 선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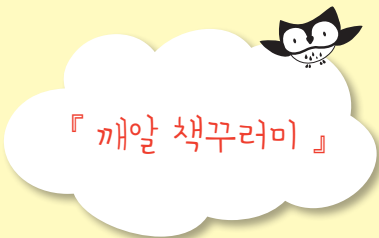
‘아주 잘했어요.’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 봐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개알 책꾸러미는 ‘깨닫고 알아가는 책꾸러미’를 줄인 말로 ‘우리마을 책친구’가 선보이는 가족독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네 가지 책꾸러미를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꾸러미에는 아빠, 엄마, 언니, 동생이 읽을 수 있는 책들과 함께 가족독서활동 가이드북이 들어 있습니다. 개알 책꾸러미가 안내하는 대로 가족 모두가 참여해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독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개알 책꾸러미 1』 - 읽어야 책
『개알 책꾸러미 2』 - 그래서 책
『개알 책꾸러미 3』 - 들리는 책
『개알 책꾸러미 4』 - 보이는 책

차례

15×15 독서 퍼즐	책 읽기 전에 해봐요!	4
가족독서 사전 활동	깨닫고 알아가는 책 읽기, 시작해 볼까요?	6
개별 독서 활동	아빠 · 이렇게 읽어 보세요	8
	엄마 · 이렇게 읽어 보세요	10
	청소년 · 이렇게 읽어 보세요	12
	아동 · 이렇게 읽어 보세요	14
	유아 · 엄마 아빠! 이렇게 읽어 주세요	16
가족독서 주제 활동	우리 가족 책친구_ 열기 활동	18
	우리 가족 책친구_ 펼치기 활동	19
	우리 가족 책친구_ 마무리 활동	20
독서과정 점검표	깨닫고 알아가는 책 읽기 되돌아보기	21

『깨알 책꾸러미』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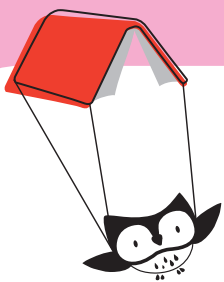
『깨알 책꾸러미』는 가족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자 눈높이에 맞는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면서 즐길 수 있는
책 읽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깨알 책꾸러미』 진행 순서를 따라 해보며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깨알 책꾸러미』 책 읽기 활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하기보다는
책 읽는 시간을 천천히 즐기고,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 편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읽은 책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하고 싶은 활동
한두 가지를 정해 마음이 가는 대로 해보아도 좋습니다.

「깨알 책꾸러미」 진행 순서





「깨알 책꾸러미」 4

보이는 책

책을 읽으면서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그림처럼 펼쳐지거나
지은이의 생각에 내 생각이 더해져
상상의 날개가 활짝 펼쳐진 적이 있나요?

책을 읽으면서 떠올리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도 두고두고 마음속에 남지요.

『깨알 책꾸러미』 4 <보이는 책>은, 책과 연결된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통해
책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족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누비며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 그림들을 마음껏 펼쳐 보세요.
말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나도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깨알 책꾸러미』 4 <보이는 책> 가족별 책



(부모 1)
아빠



부모 2)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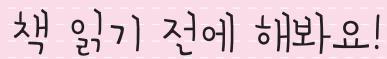
청소년
(14세~19세)



아동
(7세~13세)



유아, 아동
(2세~13세)

[illegible]



질문을 잘 읽고 15×15 독서 퍼즐의 가로 세로 칸에 맞추어 알맞은 낱말을 채워 보세요.

- ➡ 1 <작은 점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종이 한 장 위에 있던 ○○○ 하나로 시작됩니다.
- ➡ 2 <프레임>에서 지은이는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 중심적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 3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에서 지은이가 찾아간 풍니 마을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학살당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가 있어요.
- ➡ 4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의 지은이는 전 세계의 NGO를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NGO를 우리말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
- ➡ 5 <작은 점 하나>의 주인공 아킬레스는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했어요. 아킬레스가 세상을 돌아다니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튼튼한 ○○○였어요.
- ➡ 6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에서 지은이는 피스보트에서 ○○○ 할머니들을 위한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기획했어요.
- ➡ 7 <깜장 우산>의 주인공 깜장 우산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할아버지의 마법의 주문인 ○○○를 생각하며 버텨냅니다.
- ➡ 8 <깜장 우산> 이야기에서 일곱 빛깔 무지개 우산들은 매일 자신이 가장 예쁘고 ○○○라는 듯 뽐냈어요.
- ➡ 9 엄마가 읽을 책은 작가 자신의 ○○○시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 ↓ 10 <나의 살던 부산은>에서 저자가 스무 살 무렵, 시인인 Z와 함께 갔던 곳을 추억합니다. 시내 한복판, 부산 타워가 있는 공원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 ↓ 11 <프레임>에서 돈에 붙여지는 이것에 따라 “돈을 다르게 쓰게 된다”고 말해요. 이 프레임을 ○○○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 ↓ 12 <깜장 우산>이 태어나게 된 이유는 할아버지가 물감통을 엮는 바람에 빨주노초파남보 ○○○색이 모두 섞였기 때문이에요.
- ↓ 13 아빠가 읽어야 할 책에서는 “○○○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 ↓ 14 <작은 점 하나>에서 주인공 아킬레스는 드디어 두 다리와 두 팔을 다 가지게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 자신이 ○○○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 ↓ 15 <나의 살던 부산은>에서 지은이는 37년 전 졸업한 학교를 찾아갑니다. 지은이가 찾은 ○○○ 초등학교는 변함없는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포는 '51	늑골 '71	미려요 '13
배'12.5	물'11.11	몸은'10.5
금'9.	간'8	아'7
금'6.9	라'5	니'4
미'3	2 미'2	문'1
		서'1

<답>



깨닫고 알아가는 책 읽기, 시작해 볼까요?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 책 읽기의 세계로 빠져들기 위한 준비!

각 칸에 주어진 작은 도형들을 활용하여 책을 읽을 때 가장 편안하다가 느끼는 자세를 그려 봅시다. <예시>를 보고 같은 방법으로 그리거나, 자유롭게 그려 보아도 좋습니다.

가족들이 평소에 책 읽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빠, 엄마, 언니, 동생이 책을 읽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책 읽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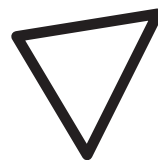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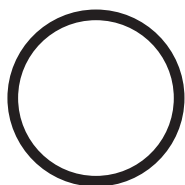
책 읽을 때 어떤 자세가 가장 편한지, 또 어느 때 가장 몰두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예시>



작은 동그라미를
앞드려 책을 읽는 아이의 얼굴로 정하고
다른 배경 그림으로 점차 확장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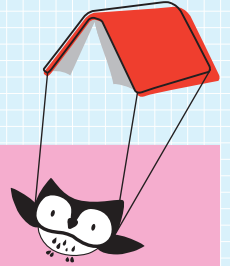




아빠 · 이렇게 읽어 보세요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 최인철 / 21세기북스 / 2007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생각의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가 이 ‘프레임’에 의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프레임을 정하기 전에 현재의 삶을 차분하게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조율하는 나만의 프레임을 설정해 보세요.

‘프레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맞게 구성하는 다양한 심리적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 삶의 프레임은 무엇이었는지 또 앞으로 나아갈 프레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프레임을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세요.

과거 프레임

과거 프레임 적용 결과



(예시) 회사 생활 20년 차인 나대로 씨의 과거, 현재, 미래 프레임의 흐름

- 과거: 열정과 노력 (그러나 별로 이룬 것도 없이 시간만 지난 것 같아 허무함이 남는다.)
- 현재: 혼란, 방치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는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정적인 삶이다.)
- 미래: 새로움, 도전 (산악자전거를 배워 전국 투어를 하면 몸도 마음도 더 튼튼해질 것이다.)

현재 프레임

현재 프레임의 강점,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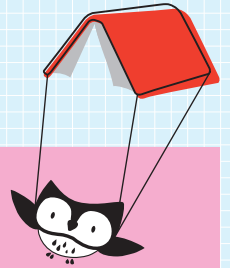
미래 프레임

미래 프레임 적용 시 기대하는 결과





엄마 · 이렇게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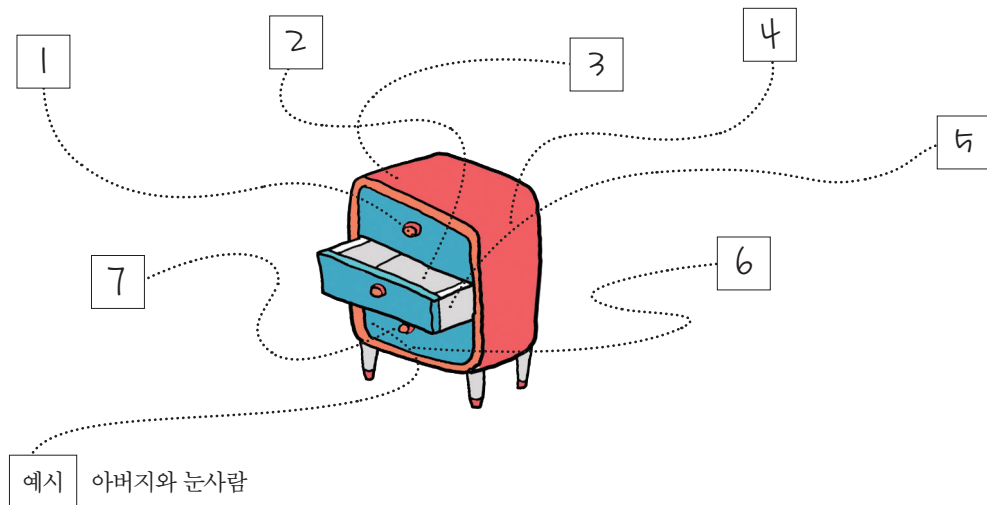
나의 살던 부산은

정길연 / 휴먼앤북스 / 2011

기억은 과거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했다가 다시 생각해 내는 정신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고향인 부산에서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 준 유년과 젊음의 기록들을 하나씩 꺼내어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기억의 골목을 따라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듯이 아내 또는 엄마로서의 나를 잠시 잊고 가슴 깊이 담아 두었던 온전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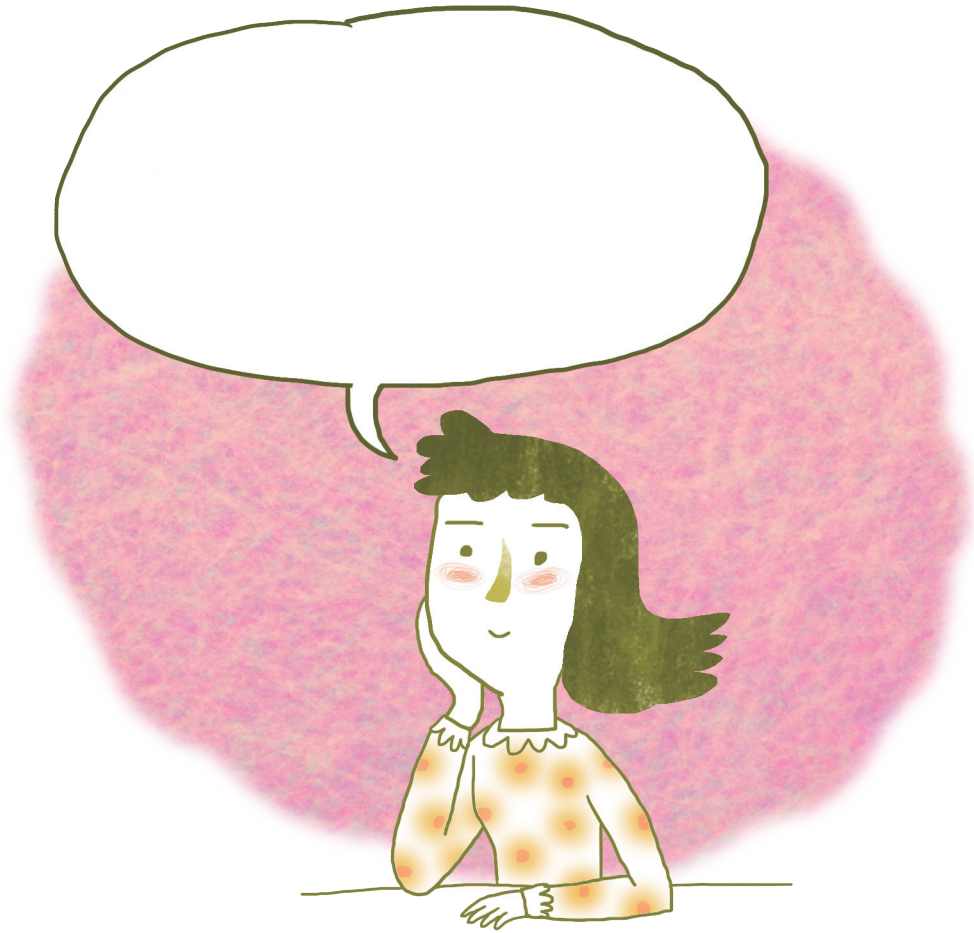
지금 눈앞에 딱 열 개의 기억만이 들어가는 ‘추억의 서랍’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의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기억은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우리 집, 내가 뛰놀던 골목과 그곳에서 함께 놀았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은 그 당시 내가 좋아하던 물건, 색깔, 반찬, 냄새는 어떤 것이었나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생각나지 않는다면 앨범 속 사진이나 오래된 편지를 들추어 보는 것도 좋겠지요.



1	
2	
3	
4	
5	
6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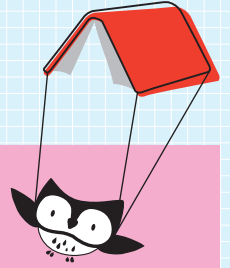
추억의 서랍 속 기억들 중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나요? 배우자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엄마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시) 커다란 눈사람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 초등학교 4학년 때 눈이 엄청 많이 온 어느 일요일이었다. 어머니는 혼자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우며 우리들과 좀 놀아 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나가셨고, 한참 후에 온 몸이 땀범벅이 되어 우리를 부르셨다. 나가 보니 대문 밖에 아버지 키보다 더 큰 커다란 눈사람이 서 있었다. 신이 난 우리는 친구들을 불러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눈사람을 자랑했다. 그 뒤로 눈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기념사진 촬영 모델이 되었고, 우리는 멋진 아버지를 둔 골목 스타가 되었다.



청소년 · 이렇게 읽어 보세요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
이동원 / 예담 / 2012

스물 다섯살 청년이 세계의 NGO를 따라 떠난 특별한 여행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서기 전에, 나만의 배낭을 꾸려 특별한 여행을 떠나 보라고 권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지구마을 어딘가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1

평소 참여하는 국내 혹은 국제 NGO 활동이 있나요? 혹은 미래에 내가 참여하고 싶은 NGO 활동을 말해 봐도 좋아요. 특별히 관심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시〉 어느 날 TV를 보다가 유명 연극자가 빈곤 국가의 어린이들을 구호하는 단체에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매우 감동을 받았다. 가난과 질병에 고통 받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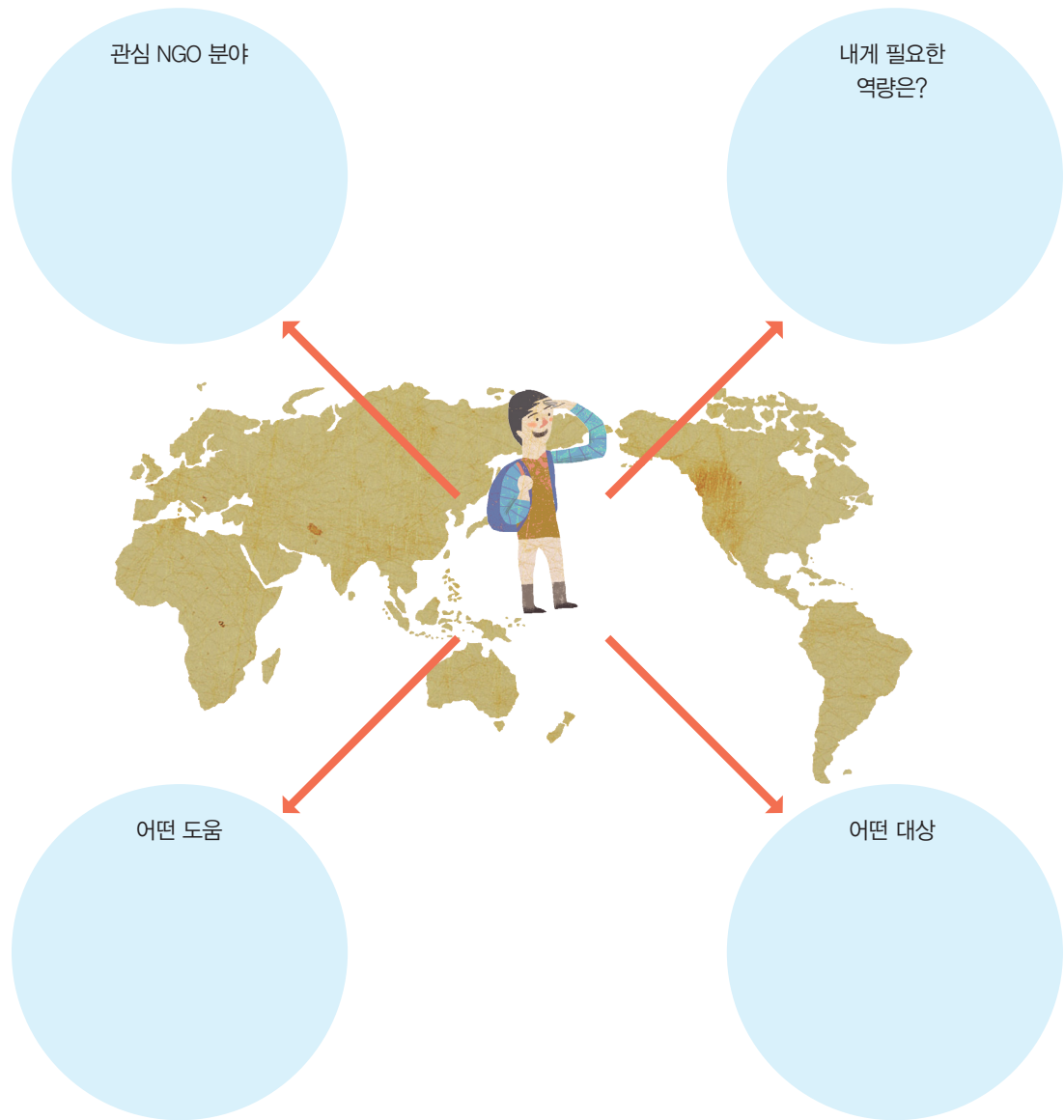
지금 내 관심 NGO 활동은?



특별히 관심이 가는 이유는?

2

책을 읽다 보면 NGO 단체와 함께한 지은이의 여정이 매우 다채롭습니다. 만약 지구마을을 여행할 기회가 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NGO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가요? 그들을 만나러 갈 때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여 배낭에 넣어 보세요.



〈예시〉 관심 NGO 분야: 생태 환경

어떤 대상: 오랜 가뭄으로 점차 초지가 사라져 가는 몽골 사막의 마을

어떤 도움: 나무 심기 활동, 농지와 초지를 가꾸는 첨단 농법 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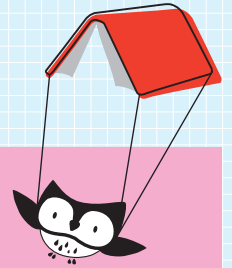
어떤 능력: 건조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종류 파악

모래와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농지 설계 연구

건강한 체력과 생태 환경 관련 학과 진학



아동 · 이렇게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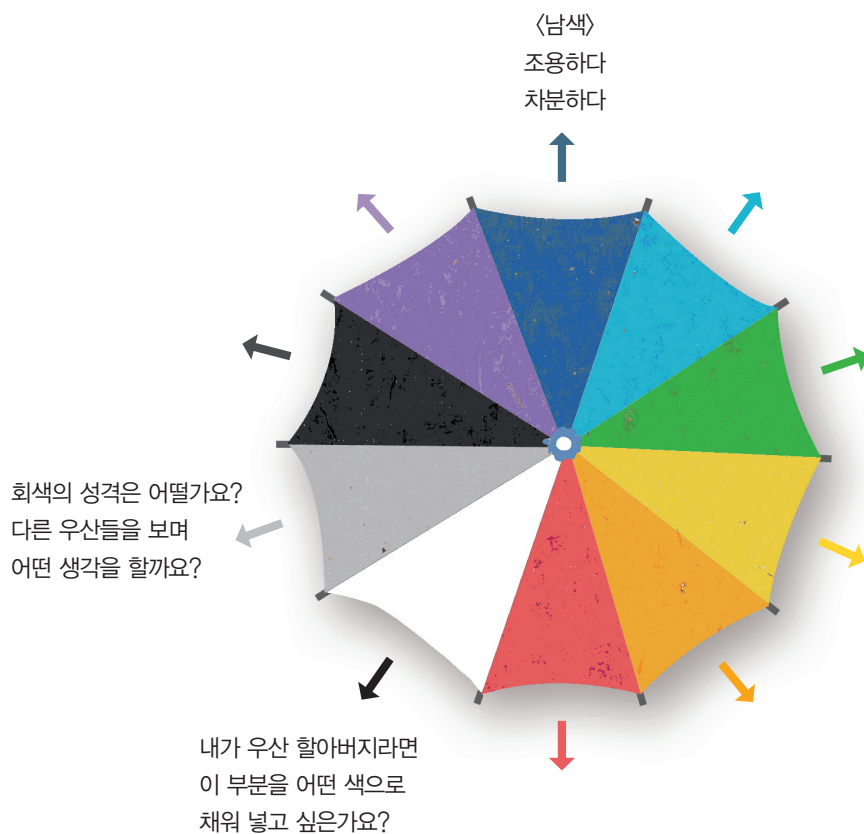
깜장 우산

김영희 / 나한기획 / 2012

깜장 우산은 색색의 고운 무지개 빛깔 우산들과는 달리 까맣고 불품없어 보이기에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어요. 슬픔에 빠진 깜장 우산은 무지개 빛깔 우산들을 만든 물감을 모두 훔쳐 꼭꼭 감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까만색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어요. 깜장 우산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깜장 우산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가며 책을 읽어 보세요. 깜장 우산이 다시 활짝 웃게 된 비밀을 만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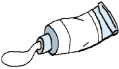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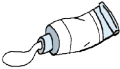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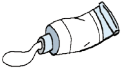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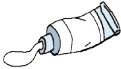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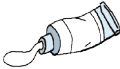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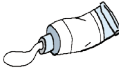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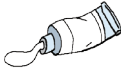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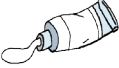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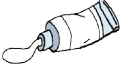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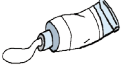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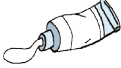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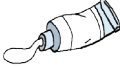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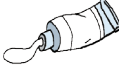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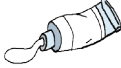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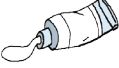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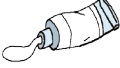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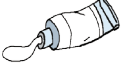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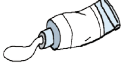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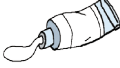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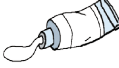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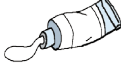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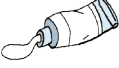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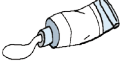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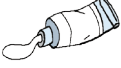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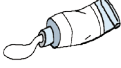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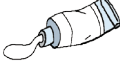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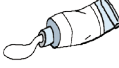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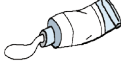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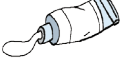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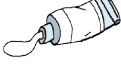
1

책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빛깔의 우산들이 저마다 다른 성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빛깔 우산들은 어떤 마음과 성격을 가졌는지 책을 다시 보며 하나씩 살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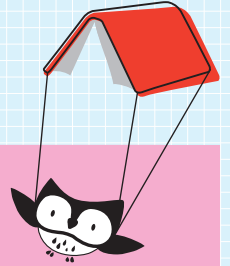
2

예쁜 우산이 완성되려면 한 가지 색깔이 부족하네요. 내가 우산 할아버지라면 어떤 색을 채워 넣을까요? 내 성격을 닮은 색을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 일곱 가지 색깔 물감이 열 개씩 있어요. 나의 성격을 담은 물감을 얼마나 풀어 놓으면 좋을지 색칠해 보세요.

색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10							
9							
8							
7							
6							
5							
4							
3							
2							
1							



유아 · 엄마 아빠! 이렇게 읽어 주세요



작은 점 하나

기아 리사리 / 한솔수북 / 2008

깨끗한 종이 한 장. 그 안에 작은 점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점은 자꾸 무언가 하고 싶어 생각을 했고, 그 생각 덕분에 하나둘 몸이 생기고 '아킬레스'라는 멋진 이름도 얻습니다. 또 세상을 돌아 보며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가운데 행복을 느낍니다. 작은 점 하나가 밤하늘을 수놓는 아름다운 점들이 되기까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변해 가는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천천히 읽어 주세요.

1

작은 점 하나가 스스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생각에 따라 작은 점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 그려 보세요.

작은 파란 점이 하나 있었어요.		파란 눈이 되었어요.	
눈이 하나 더 생겼어요.		비를 피하고 싶었어요.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세상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꽃과 당菓를 더 잘 알고 싶었어요.		노래를 잘 부르려면 귀로 노래를 들어야 했어요.	
시냇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예쁜 돌멩이를 하늘 높이 보내주고 싶었어요.	

2 밤하늘에 빛나는 아름다운 점들이 된 아킬레스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해 냈을까요? 아이와 함께 뒷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예시) 하늘에 떠 있는 작은 구름 친구라고 생각하고 다른 구름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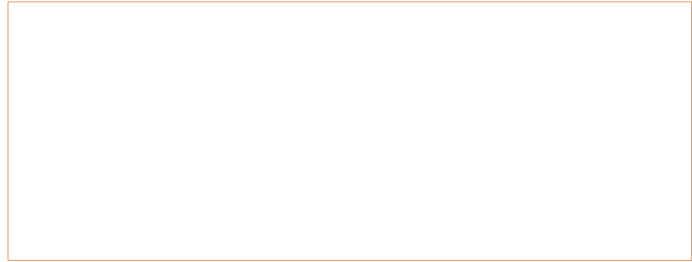
우리 가족 책친구_ 열기 활동

숨은 이야기 찾기

같은 것을 보고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책 읽기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같은 책을 읽더라도 서로 다른 느낌으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1

우선 여러 가지 모양과 색,
크기의 천을 모두 늘어놓아 보세요.
어떤 모양인지 그려 보세요.



2

이제 주어진 천들을 이용해 각자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아래 그림처럼 같은 것으로도 각자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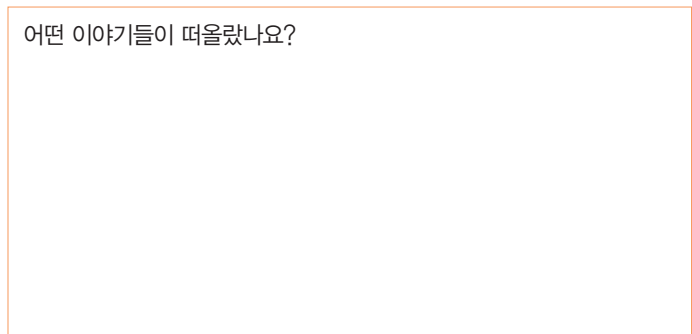
〈예시〉 엄마가
만든 모양



내가
만든 모양



어떤 이야기들이 떠올랐나요?



3

지금부터 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의 천을 가져와 보세요.
이불, 보자기, 옷, 수건, 방석 등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죠?

4

마지막으로 가져온 모든 천들을 이용하여 각자 만들고 싶은 모양을 완성해 봅시다.
어떤 모습, 모양을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Tip 얇은 이불을 허리에 묶으면 씨름 살바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얇은 이불을 펼쳐놓고 사방을 살짝 말아 올려서 뗏목 배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온 가족이 이불 배를 타고 상상 책 바다로 떠날 수 있겠네요.

베개를 모두 가져와 내 팔 위에 쌓아 올려보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나르는 모습 같지 않나요?



우리 가족 책친구_ 펼치기 활동

생각의 끈

우리 머릿속 생각과 마음속 느낌을 그림이나 모양,
그리고 글을 연결하여 눈에 보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래 예시를 보고 리본 끈을 활용해 각자 읽은 책에
각자 읽은 책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 보세요.

준비물

서로 다른 무늬가 새겨진 폭 2~4센티미
터 길이 1미터 정도의 기다란 리본 2개

<예시>



“아...
생각이 복잡해”



“생각을
잘 붙들어 댄어”



“달팽이처럼
천천히 읽었어”



“차곡차곡
생각을 정리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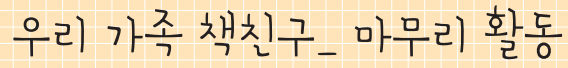


“주인공이
사랑스러워”



“완전
재미있었어”

가족 중 누구?	어떤 모양?	어떤 말로 표현했나요?



- 1) 가족 모두 모여 <작은 점 하나>를 읽어 보세요.
- 2) 이제부터 우리 가족만의 ‘작은 점 하나’ 그림책 이야기를 만들어 봅니다.
- 3) 파란 동그라미 색종이와 여러 가지 색깔의 색종이를 준비하세요.
- 4) 집에 있는 가위와 풀도 준비하세요.
- 5) 파란 동그라미 하나에서 시작하는 우리 가족만의 ‘작은 점 하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 6) 가족이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연결해 보세요.
- 7) 이야기에 맞춰 적당한 색과 적당한 모양과 적당한 크기로 색종이를 오리고 붙이면 됩니다.
- 8) 가족 중 한 명은 이곳에 가족들의 이야기를 받아 적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우리 가족이 함께 읽은 『깨알 책 꾸러미』 4 는 <보이는 책>입니다.

<보이는 책>을 통해 책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다양한 시각적 심상과 연결하게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을 소개할게요.

가까운 도서관 가서 찾아 읽어 보면 좋겠죠?

- 부모 : <비움>(곽영권, 아지복스)
- 청소년 : <달려>(이혜리, 보림)
- 아동/유아 : <느끼는 대로>(피터 레이놀즈, 문학동네어린이)

보이는 책 4 「깨알 책꾸러미」 가족독서활동 가이드북

발 행 일 | 2012년 11월

발 행 처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7층
전화 02-3704-2739 팩스 02-3704-2798
홈페이지 <http://www.clip.go.kr>
(재)행복한도서관재단
(423-795)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E동 604호
전화 070-7865-1919 팩스 02-6112-2229
홈페이지 <http://www.happylibrary.org>

개 발 | 책임연구원 오선경
연구원 황복순 이정은 손희영 김두심

디 자 인 | 파피루스(02-322-1286)

일러스트 | 김영곤

홈페이지 | <http://www.webookfriends.org>

비매품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행복한도서관재단이 주관하는 2012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개발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